



위성미가 1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팜데저트의 빅혼골프장 캐년코스에서 열린 LPGA 투어 삼성월드챔피언십 3라운드 15번홀에서 드라이브 샷을 한 뒤 공의 궤적을 쫓고 있다. 연합뉴스

# 태극낭자들 “올 V10 정말 힘드네”

## ■ LPGA 삼성월드챔피언십 3R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한국 선수 시즌 10번째 우승은 다음 기회로 미뤄질 조짐이다.

‘천만달러의 소녀’ 위성미(17·나이키골프)의 명예 회복 역시 이번에는 이뤄지지 어렵게 됐다.

15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팜데저트의 빅혼골프장 캐년코스(파72·6천645야드)에서 열린 LPGA 투어 삼성월드챔피언십 3라운드에서 한국 선수들은 모두 우승권에서 멀어졌다.

## 위성미·박세리 등 부진...이선화만 톱 10

### 선두와 9타차...막판 역전 사실상 어려워

최종상금 선수 20명만 출전한 이 대회에서 가장 높은 순위에 자리 잡은 한국 선수는 3언더파 213타로 공동8위에 오른 이선화(20·CJ)지만 단독 선두 언니가 소렌스탐(스웨덴)에 무려 9타나 뒤져 사실상 역전 우승은 물건너 간 상황.

1언더파 71타를 친 박세리(29·CJ)도 종합합계 이븐파 216타로 11위를 달렸지만 최

종라운드에서 뒤집기 우승을 차지하기에는 소렌스탐이 너무 멀리 달아났다. 1, 2라운드에서 ‘롤러코스터’ 스코어를 만들어냈던 위성미는 이날은 비교적 차분하게 경기를 치렀지만 버디 3개와 보기 3개를 맞 바꾸며 이븐파 72타로 제자리 걸음을 걸었다.

사흘 동안 한번도 언더파 스코어를 내지

못한 위성미는 종합합계 2오버파 218타로 순위는 전날 공동15위에서 공동13위로 조금 끌어올렸지만 작년에 실격당했던 아픔을 씻어내기가 힘들게 됐다.

이 대회를 이미 5차례나 우승했고 특히 빅혼골프장에서 열렸던 2004년과 작년 대회를 제패한 소렌스탐은 버디 7개를 쓸어담으며 6언더파 66타를 쳐 종합합계 12언더파 204타로 단독 선두에 나섰다.

2위 로레나 오초아(멕시코·207타)를 3타차로 따돌린 소렌스탐은 이로써 LPGA 투어 단일 대회 최다승 신기록 수립(6회 우승)을 눈앞에 뒀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장타 부재...긴 코스 공략 실패

### ■ 한국선수들 ‘삼성월드’ 부진 이유

기업은행)은 모두 장타를 치는 선수가 아니다.

박세리(29·CJ)는 비교적 멀리 쳐내는 장타력을 갖췄지만 예전보다 비거리가 줄어들어 내로라 하는 장타자 대열에는 끼지 못한다.

이들은 비거리가 짧은 선수들은 특히 400야드가 넘는 곳이 많은 파4홀에서는

버디 기회를 좀체 만들지 못했다.

더구나 길어진 코스에 짧은 비거리로 공략하려다 무리한 샷이 나오는 경우도 많아 타수를 한꺼번에 잃은 일도 자주 벌어졌다.

반면 긴 코스에 페어웨이가 널찍해 마음껏 드라이버를 휘둘러 수 있는 이점을 누린 장타자들은 일제히 선두권으로 치고 나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단독 선두 언니가 소렌스탐(스웨덴)을 비롯해 로레나 오초아(멕시코), 소피 구스타프손(스웨덴) 등 우승 경쟁을 벌이게 된 선두권 선수들은 한결같이 LPGA 투어에서 손꼽히는 장타자들이다.

장타 2위 브라티나 린시킴(미국)과 장타력에서는 남부럽지 않은 위성미(17·나이키골프)는 정확성이 떨어진 탓에 장타력을 보지 못했지만 LPGA 투어도 PGA 투어처럼 ‘장타자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점차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정확한 드라이브샷과 컴퓨터 아이언샷, 그리고 남다른 정신력으로 LPGA 투어를 석권해온 ‘코리아 파워’가 앞으로 ‘장기 집권’을 하려면 장타가 요긴하다는 지적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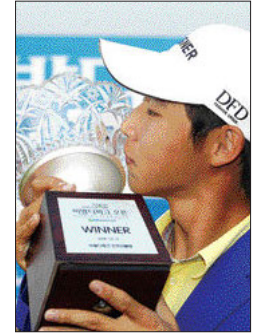
## 생애 첫 정상 ‘입맞춤’

### 프로 2년차 최진호 1타차 우승

#### KPGA 비발디파크 오픈

프로 2년차 최진호(22·보그너·사진)가 한국프로골프(KPGA) 비발디파크 오픈에서 생애 첫 우승컵을 거머쥐었다. 최진호는 15일 강원 홍천 비발디파크 골프장(파72·7천14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날 1언더파 71타를 쳐 4라운드 합계 12언더파 276타로 공동 2위인 이진원(28·동아회원권), 이승호(20·투어스테이지)에 1타차 정상을 올랐다.

작년 프로에 데뷔한 최진호는 우승 상금 6천만원의 타 단숨에 시즌 삼금 랭킹 ‘톱10’에 진입했고, 프로 2년차에게까지



기회가 주어지는 신인왕 타이틀 확보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

최진호는 18번홀에서 티샷이 왼쪽으로 감겨 러프지역 내 나무 바로 옆에 떨어지면서 위기를 맞았으나 샷 방향, 즉 비구선에 방송 중계탑이 위치해 있다며 경기위원회에 구제를 요청해 무벌타 드림을 얻는 행운을 누리기도 했다.

### 이지연 9번홀 이글...선두 도약

#### KLPGA 메리츠솔모로클래식

이지연(25·사진)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메리츠솔모로클래식에서 생애 첫 우승컵을 안았다.

이지연은 15일 경기도 여주 솔모로골프장 퍼시몬·체리코스(파71·6천95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5언더파 66타를 쳐 3라운드 최종합계 6언더파 207타로 김소희(24·빈폴골프) 등 2위 그룹을 3타차로 제쳤다.

4번홀까지 함께 이븐파였던 이지연은 5.6번홀 연속 버디에 이어 9번홀에서 짜릿한 이글을 성공시켜 선두로 도약했다.



이지연은 2002년 프로로 전향한뒤 미국으로 건너가 LPGA 2부 퓨처스투어에서 뛰다가 웰리파인 스쿨을 통해서 2003년 LPGA 정규투어에 진출했으나 성적이 좋지 못해 웰리파인 스쿨을 재수하는 등 조건부 출전으로 근근이 투어를 명명하고 있는 ‘무명 골퍼’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이승엽 이달말 거취 표명”

### 日 ‘스포츠호치’ 보도

무릎 연골수술을 받은 이승엽(30·요미우리 라이온즈)이 이 달 하순께 자신의 거취를 최종 표명할 전망이다.

일본의 스포츠 호치는 14일 무릎 수술을 받고 퇴원한 이승엽이 “거인 소속으로 우승하고 싶다. 1주 정도 생각하고 싶다”고 밝히며 빠르면 이달 하순에 요미우리 잔류를 정식으로 천명할 전망이다이라고 15일 인터넷판을

통해 보도했다. 스포츠 호치는 목발을 짚은 채 병원 문을 나선 이승엽이 “요미우리는 좋은 동료, 좋은 선수가 있다”고 고백했으나 마음을 굳힌 표정은 아니었다고 전했다.

내년이면 31세로 야구선수로는 최고의 전성기를 맞게 되는 이승엽이 메이저리그 진출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다. 이날 이승엽과 동행한 에이전트인 미토 시게유키(49) 변호사는 “메이저리그 진출을 거론하며 몸값을 올릴 생각은 전혀 없다. 요미우리와는 다시 1년 계약을 하는 방안도 있다”고 잔류를 유력하게 시사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15일 열린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 4차전에서 오글랜드 애슬레틱스를 누르고 22년만에 월드 시리즈에 진출한 디트로이트 타이거스 선수들이 승리의 기쁨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오도네스 끝내기 3점포...디트로이트 WS 진출 (월드시리즈)



디트로이트 타이거스가 매글리오 오도네스의 끝내기 3점포에 힘입어 22년 만에 월드시리즈에 진출했다. 디트로이트는 15일(한국시간) 코메리카

파크에서 오글랜드 애슬레틱스와 펼친 미국 프로야구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시리즈(ALCS) 4차전에서 3-3이던 9회말 2사 1, 2루에서 오도네스가 좌측 펜스를 넘어가는 3점 홈런을 쏘아올려 6-3으로 이겼다.